

김행강의 구술기록

인터뷰 · 정리: 이윤오

구산동도서관마을과 첫 만남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처음 이용하시게 된게 언제세요?

정릉 살 때는 종로에 있는 사직도서관이 옛날에 조그마했어요. 지금의 종로도서관인데 지금은 잘해놨다더라고요. 종로도서관에 다니다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다녔어요. 아직 그 회원증이 있어요. 여기 2000년도에 은평구에 이사오면서 이제까지 시집살이 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책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많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은평구에 이사 와서 60대 초년이 됐는데 그때는 여기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은평구립서관이 생겼는데 저기 은평구 산꼭대기에 있어요. 은평구립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갔어요. 물어 물어서 올라가서 갔어요. 요새같이 막 지어놨더라고요. 지하에 식당도 있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니까 숨차고 그때는 아프고 나서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산이고 그래서 포기하고 시청에 갔어요. 버스도 탔지만 전철 타고 책을 빌려 왔어요. 근데 책을 반납해야 할 2주가 가까워지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또 갖다 주고 와야지. 책은 보고 싶은데 부담이 되면서도 아무튼 책을 보러 다녔어요. 회원 가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는 찰나에 구산동도서관마을이 생긴 거예요.

구산동도서관마을 동아리 활동

시모임을 통해 선생님이 처음 썼던 시는 어떤건가요? 시를 쓴 배경도 궁금합니다.

7715번 버스에 관한 시인데 그리운 친구에 관해서 썼어요. 2012년인가 13년도에 살림 생협에서 하는 텃밭에 가서 뭐 심으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젊은 아기 아빠하고 또 중년 50대 후반 엄마하고 나하고 셋이 묶어졌어요. 이렇게 함께 한 텃밭을 하라고 근데 거기서 만난 박정희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60대 후반인가 그 사람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남편이 은행임원이더라고요. 근데 사치도 안 하고 고상하게 하고 다녀요. 항상 운동화 신고 부자 같은데 부자 티도 안 내고 나를 그 사람도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보통 '행강님'이라고 안 하고 언니나 형님이라고 하고 막 나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행강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불교를 믿고 나는 성당에 다니는데도 종교에 관해서 전혀 뭐 나쁜 좋은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시민단체에 기부도 하더라고요. 한 2~3년 밖에 같이 다니니까 친해졌잖아요. 셋이 밥도 먹고 다니고 강화도도 가고 애기 아빠가 차 태워가지고... 그러다 남편분이 은퇴를 하게 됐나 봐요. 은퇴를 요즘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사 간다. 그래서 이사

가면 한번 모이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식이 없이 가버렸어요. 소식 없이, 나 간다는 말도 없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사이였고 아무 불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저 고개 은평터널 지나서 그 중학교 뒤에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거기 가려면 7715번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사람 친구가 이사가고 한참 후에 내가 여기 시 동아리 오기 전에 그런 시를 썼어요.

친구가 어디서 사는지 보고 싶은데 소식을 모르니? 언제라도 한 번은 보고 싶다. 이제 자기 집에 가던 7715 버스가 지나가면 차가 가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그렇게 썼어요. 짧은 시를. 그런 걸 썼는데 여기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찍고, 줌으로 하고 했어요. 줌으로 갑자기 하라고 해서 내가 써놓은 게 7715번 버스밖에 없더라고요. 7715번 버스 시 낭송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놀래시네요. ‘그 버스가 가는 방향 따라 고개가 돌아간다’ 그것도 듣고 놀라버렸대요. 그래서 그 시를 발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해에 처음 나와서 그걸 발표했죠. 그래서 “7715 버스”가 되어버렸어요. 시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시가 나왔던, 절절하게 어떤 것에 생각을 두면 나오지 남의 시를 본다고 인용이 되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나태주 씨 시를 보면 ‘시는 길에서도 좁는 것이다.’ 그런 게 있더라고. 좁는다고 그거 아무나 주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낭송동아리에서 어떤 점이 제일 즐거우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영상을 찍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고 그랬어요. 지금 4년째예요. 찍은 영상 유튜브를 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소소하게 지냈으니까 그게 뭐 수확이라면 수확이죠.

이번 시 모임에서는 어떤 시를 발표하세요?

모임선생님이 주제를 먹는 음식에서 찾자 그래서 전부 칼국수, 팔죽 그리고 삶은 감자 그런 것만 전부 했어. 그 나는 뭐 할게 없어서 고르라는 거 중에서 떡집이라는 걸 골랐는데 좀 단어가 난해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어저께 선생님 원 생각이 들었는지 “선생님 그거 좀 난해하면 동지 팔죽 있잖아요. 맛깔스러운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지에 그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한 애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동지로 하실래요?’ 물어서 ‘예 할게요’라고 했죠..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만난 사람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사람이 있다면요?

전 관장님이 기억이 나요. 인상이 좋았어요. 난 그 글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글이 왕창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박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만큼 썼어요. 처음에 그런데 좀 길게 써보시지 뭐 좋았던 점 그랬던거. 인천 갔다 와서 이제 글을 쓴 게 그 자리에서 쓴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 기억은

지난번 관장님이 제일 많고요. 처음 몇 분들은 무관심했어요. 지난번 관장님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전에 지나다녀도 관장님인지 몰랐어요. 가다가 의자를 고치고 지나가고 그래도 몰랐는데 이제 인천으로 답사를 간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갔더니 같이 가서 거기서 많이 겪어봤죠. 같이 사진도 찍어 주시고 내가 어디가 앉아 있으면 나를 찍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좀 좋게 봐버렸나 봐. “여기 선생님이 인천분이라 자리 안내해 주실 거예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설명도 해주시고 되게 다정하셨습니다. 처음 그렇게 겪어봤죠. 그런데 7월 말에 가신다고 그래서 속으로 많이 섭섭했죠.

또 기억나는 사람은요. 김효정 선생님이요. 30살인가 먹은 아가씨인데 선생은 왜 나이도 어린데 나를 그렇게 조절 없이 대할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성격도 그렇고 활발하고 싹싹하고 애교 있고 막 그래요. 여기 근무하는 중에 대학원을 가더니 공부를 해 갖고 교사자격증을 따서 강릉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강릉 중학교 선생으로 가버렸어요. 그 선생님도 나보고 놀러 오라고 좀 전화 오고 그랬어요. 강릉 놀러 오면 호텔로 모신다고 그 정도로 정이 들었어요. 누가 아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짝 찼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서슴없이 다닐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일종의 책 읽는 모임에 관한거예요. 이 모임은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나까지 있었다는 거. 그거 말고 뭐 또 있겠어요. 사람이 적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저까지 있었어요. 모임에 초등남학생이 왔어요. 저기 은평중학교인가 어디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상기된 표정으로 밝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나이 차가 있어도 서로 여기서도 사주고 개인들도 사고 밥도 먹으려다니고 잘했는데, 남자애인데 어른같이 말하고 우리가 애 어른이라 그랬어요. 애가 아주 싹싹해 어른 노릇을 해요. 그리고 잘생긴 청년이 있었고 또 여자분 한 분 있었는데 들락날락했어요. 몇 사람이 왔다가 이제 재미도 없고 교감이 안 맞아 보였는지 안 하고. 초등학생은 중학생 될 때까지 끝까지 나왔어요. 그 학생이 어른스러운 소리만 하고 독서를 무지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왔겠죠. 네 독서를 많이 해요. 제 못 버리는 게 말이 빨라요. 천천히 하면 좋는데 말이 빨라요. 그거는 안 고쳐지더라고요.천천히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도서관과 나의 삶

선생님한테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어떻게 좋을까요?

층별이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층마다 마음대로 올라가 다니고 저는 이제 추운 걸 못 견뎌요. 에어컨이 뽕뽕 나오면 추우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 3층의 경우 밖에 있어요. 화단에 나가서 앉아서 책을 보고 오면 참 좋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뭐라고 그럴까 아방궁 같아요.

선생님은 주로 언제 도서관을 많이 가세요?

나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고 싶어. 그리고 전에는 대출을 했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래서 요즘은 앉아서 책을 봐요. 지난번에는 건강에 관한 책을 세 권을 보고 왔는데 그 책들은 짧잖아요. 정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좀 훑었어요. 세 권을 보고 왔더라고요. 4시간을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까르르 웃으시며)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보고 와요. 그 시간만 나면 도서관 가고 싶어.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그 뒤에 또 한 번 가봐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또 지하철 갈아타야 되고 거기서 또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한 5분, 5-6분 길을 하나 건너면 되요.

선생님은 도서관 이용하실 때 뭐가 좋으셨어요?

학습관 가서 글을 썼어요. 동인지에 내가 시집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것들을 더러 썼더라고요. 그럴 때 좀 풀렸지 않나 싶어요. 생활에 관한 건 내가 안고 있지만 단어나 문장 같은 것은 책을 보아야 말하자면 습득이 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되죠. 나이 먹으면서 일상적인 단어도 생각이 안 나지만 책을 읽고 오면 글에 대한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습득하는 데 덜 어렵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나이 좀 어린 사람이나 내 또래 사람들 보고 도서관에 가면 좋으니까 가자 그렇게 권해요. 아무도 안 가요. 이 도서관 가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는데 왜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나요? 카페에다가 글도 쓴 게 있어요.

왜 다른 어르신들은 도서관에 안 가실까요?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대에는 공부를 좀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 이제 거기에 또 영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컴퓨터라도 하고 가입도 해서인가? 아니면 대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읽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답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한 번 왔다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내 손주 봐야 한다 밥 찾아줘야 된다. 며느리 뭐 시장 받아와 줘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오고는 안 와요. 여기 오면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장소다. 그분들은 수다가 먼저고 저 같은 경우는 수다량은 좀 멀어요. 수다를 떨다 보면 좀 피곤해하고 말실수도 하고 그래요.

모임에 끼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끼어든다’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었다고 곧바로 보잖아요.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중복해서 말한 적 없냐고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난 늘 말하죠. 시원하고 따뜻하고 상식을 넣어주는데 왜 안 가냐, 가자고 해도 안 가더라구요. 어린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고 우리 또래는 이제 갈 사람으로 보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님들이 1등이에요. 새로 온 견습 사서들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그냥 100% 해줘요. 저기 복지관에 갔는데 거기엔 도서관 사서님이 하는 말이 책을 빌리려면 그 도서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게 나온 말이 “구산동도서관마을에 가면 사서님들이 다 해주니까 나 안 했어요” 속으로 알미웠을 거예요. 아이고 노인이라고 진짜 그게

끈대 짓이에요. 그만큼 자식들한테는 못 물어봐요. 엄마 그거 참 제발 좀 갖고 놀아. 아기들이 왜 잘하는지 알아요. 왜 엄마는 맨날 물어봐. 그래 자식이 더 어려워요. 자식은 자꾸 물어보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상식 알려주는 사서들이 1등이다. 나는 어디에서건 자랑해요. 난 눈치껏 해 줄만한 사람한테 그러지 아무나 못 내밀어요. 아까 휴대폰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은 계속 물어보는데 한 번 물어보면 두 번 물어보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런 사실이에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이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제 그만 가야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배워서 해야지 근데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도서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큰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어디 나가서 수다 떨고 그런 형이 아니니까 어떤 할머니들이 저기 공원에 앉아 있으면 여기 와서 개인 사정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들어주지 못해. 왜냐하면 그런 역량이 그릇이 없어요. 도서관이 없으면 저는 친구가 없는 거죠. 친구이자 상식이자 전체라고 봐야죠. 살아가는데 그 힘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책을 안 보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 갑상선 암이 생기면서 힘들었어요. 결혼 후 구식 시집살이 하느라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식으로 살았으니까 구시대, 세끼 밥을 다 해서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내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구.

도서관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제 편의상 다니는 거지, 도서관이 있어서 다닌거지 저를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뭘 바라겠어요. 제가 다닐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어른들한테 가장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좋은 상황이 자손 후대에게 더 길게 오래 가기 바라는 거 그거지 더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다가 불편한 상황을 후손에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런 상황이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도서관이 나를 위해 그걸 바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